LEVEL

UP

 PROJECT

opening

지난 2019 수능 이후로 아무래도 제일 ‘HOT’한 과목은 무엇일까? 정답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어입니다. 2019 수능 당시의 국어 과목의 상황은 정말로 ‘HELL’이었죠. 화작문부터 시작해서 비문학, 문학까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필자도 시험을 보는 와중에 정말 시험지를 태워버리고 싶은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어를 포기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국어는 여전히 수능에서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어를 완전히 말아먹었는데 다른 과목을 전부 잘 봐서 좋은 대학을 간다. 필자의 생각으로 좋은 대학을 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물론 좋은 대학의 기준은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좋은 대학은 여러분도 모두 아시잖습니까? 실제로도 오히려 국어 덕분에 대학을 갔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국어 때문에 수능을 말아먹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대부분 국어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난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필자가 깨달은 생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글을 읽는 능력입니다.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이며, 어디까지 이해할 것인가?

이 교재는 여러분의 국어 성적을 100점으로, 1등급으로 바로 만들겠다는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100점과 1등급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 교재를 통해 여러분이 배운 것이 없었으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교재의 내용을 자연스레 체화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S : 당연한 사실이지만 정말 엄청난 노오오력과 근성이 요구됩니다. 지겹게 느껴지도록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 챙기시고 ‘반복’과 ‘적용’ 합시다.

목차

Ⅰ 기출과 공부에 대해

Ⅱ 독해, 틀 잡기

Ⅲ 문과

Ⅳ 이과

Ⅴ 예체능

Ⅵ 기출 조각하기-Season 1

Ⅶ 기출 조각하기-Season 2

Ⅰ기출과 공부에 대해

기출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보통 말하는 기출은 평가원 기출이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흔히 평가원 기출을 최고로 친다. 모든 강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문제의 퀄리티는 평가원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 <트렌드는 평가원이 주도한다> 등등 수많은 선생님들의 수많은 어록이 존재한다. 수많은 강사들이 이렇게까지나 이야기 하는 평가원 기출들을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다음 번에도 잘 풀 수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수많은 강사들이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쳐 수능시험장으로 보내는 것이다. 알다시피 국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명확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많은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평가원의 코드를 단박에 뚫어버리는 좋은 1순위 방법이 있을까? 그런 것도 없다. 막말로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배경지식도 많고, 글 읽는 속도도 빠르며 이해하는 능력, 지문을 기억하는 능력 등등 각종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이러한 방법론이 필요 없이 SSG 읽고 SSG 풀 수도 있다. 그런 괴물들을 이기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그들과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을 뿐이다.

앞서 Opening에서도 말했듯이 이런 친구들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엄청난 노오오력과 근성을 가지고 달려야 한다. 하지만 ‘뭔가’가 있어야지 공부를 시작할게 아닌가? 그때 우리가 펼쳐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기출이다.

일단 기출을 풀어보지 않은 학생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기출을 접해 봤을 텐데 이미 여러분들 중에 기출을 여러 번 돌려서 지겨워진 친구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출은 최소한 3회독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다른 과목은 강사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지 않아도 고인물이라면 만점이 일상일 수 있겠지만 솔직히 국어는 까딱 잘못 보면 훅 가는 문제들이 있는지라 강사들도 틀릴 수 있다. 강사도 가끔 가다가 훅 갈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하는 판에 학생인 여러분은 어떻겠는가? 만약 하기 싫다면 여러분이 여태껏 본 국어 모의고사의 점수에 100만 찍혀있기만 하면 된다. 근데 솔직히 이정도 수준이면 기출을 아마 여러 번 돌린 상태일 것이다. 그러니까 걍 하자.)

개인적으로 평가원 기출 외에 사관학교 기출도 매우 추천한다. 사관학교도 어차피 수능과 유형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출을 봐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수험생은 그 해 사관학교 시험을 한 번 봐주는 것도 괜찮다. 만약 된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은가?

 실모에 관한 질문은 여전히 많이 들어오는데 필자는 실모를 상당히 강추하는 편이다. 주로 학생들에게 교육청 시험이 있는 달은 한 달에 3번 정도 평가원 시험이 있는 달은 시험날 1주 반 전부터 매일 1개씩 푸는 방식을 추천하고 있다. 물론 수능 전에는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 꼴로 하라고 한다. 실모는 어디까지나 수능 국어의 푸는 감을 유지하고 시간 관리용이며 다양한 연계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용도로만 느끼길 바란다. 너무 실모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실모는 어디까지나 기출학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통 1,2,3월 달에 나오는 실모나 N제는 아껴두고 기출학습을 끝낸 후 학습하길 바라는 바이다.

Ⅱ독해, 틀 잡기

지금부터 독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한 번 읽어봅시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세대가 지나면서 돌연변이로 인해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일어나며 해당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든 생각은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 그으~냥 흘러가는대로 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때 보게 되면 여러분은 아마 금붕어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 어디서 봤는데?’하고 지문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열심히 찾고 있을 모습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렇지만 심봉사인 여러분들은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도대체 어느 단락에서 그 부분을 읽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한 번에 그 부분을 운 좋게 찾은 친구들은 운이 좋았지만 다음 문제에서는 운이 통하지 않아 개고생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장에서 주목해야 할 주단어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주단어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되겠네요. 그러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에 관한 설명이라는 여러분은 아셔야됩니다. 근데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도대체 어쨌다는 걸까요? ~ 세대가 지나면서 돌연변이로 인해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일어나며 해당 세포 안에서는 ~아!!!! 짜증이 납니다.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까요. 물론 이 정도의 문장 수준은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테지만 안 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안 되는 친구들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다는 것이죠**. 앞에 세대가 지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결국 수식입니다. 물론 필요 없는 수식이 아니라 중요한 수식이 되겠죠. 뒤에서 다루겠지만 수식하는 부분에서 인과관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 문장에서는 주단어가 뭘까요? 선의취득/양수인/소유권/소유자/소유권 중에 고른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문장에서 주단어를 찾기 애매하다고 느껴질 때는 주단어가 아닌 주어를 찾아야 합니다. 문장에서 주어는 ‘양수인’이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주어와 서술어는 알고 있죠?)양수인이 도대체 어쨌다는 걸까요? **양수인이 상실하게 된답니다.** 목적어는 조금 이따가…. 그리고 주어와 주단어는 그냥 ‘주어’라 통합하겠습니다.

두 문장을 통해서 혹시 제가 말한 것이 감이 오시는 분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주(단)어를 보고 서술어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주(단)어와 서술어의 간단한 조합만으로도 문장이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들을 통해 깨달은 바를 적어봅시다!**

하지만 헴펠의 설명 이론은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 즉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식적 판단과 충돌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

**깨달은 바 :**

파클리탁셀과 같은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방해하여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고 사멸에 이르게 한다.

**깨달은 바 :**

사진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근대 문명이 만들어 낸 기술적 도구이자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깨달은 바 :**

시장이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같은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창출된 여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깨달은 바 :**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우애와 같은 새로운 성스러움을 창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 의례다.

**깨달은 바 :**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깨달은 바 :**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깨달은 바 :**

디젤 연료인 경유는 가솔린보다 훨씬 무겁고 점성이 강하며 증발하는 속도도 느리다.

**깨달은 바 :**

한 옥타브만큼 차이 나는 두 음 중 높은 음의 진동수는 낮은 음의 진동수의 두 배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로부터 샤이블러는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를 계산해 낼 수 있었다.

**깨달은 바 :**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깨달은 바 :**

**정답**

하지만 헴펠의 설명 이론은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 즉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식적 판단과 충돌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

**깨달은 바 : 헴펠의 설명 이론은 충돌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

파클리탁셀과 같은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방해하여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고 사멸에 이르게 한다.

**깨달은 바 : 세포 독성 항암제는 사멸에 이르게 한다.**

사진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근대 문명이 만들어 낸 기술적 도구이자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깨달은 바 : 사진은 도구이자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시장이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같은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창출된 여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깨달은 바 : 시장이 추구하게 되고, 창출된 여력은 향상시키거나 인하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우애와 같은 새로운 성스러움을 창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 의례다.

**깨달은 바 : 프랑스 혁명은 창출하고 구성한 집합 의례다**.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깨달은 바 : 물체의 상태는 측정될 수 있으며, 공존할 수 없다.**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깨달은 바 : 직업 단체와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고 기대했다.**

디젤 연료인 경유는 가솔린보다 훨씬 무겁고 점성이 강하며 증발하는 속도도 느리다.

**깨달은 바 : 경유는 무겁고, 점성이 강하며, 증발하는 속도도 느리다.**

한 옥타브만큼 차이 나는 두 음 중 높은 음의 진동수는 낮은 음의 진동수의 두 배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로부터 샤이블러는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를 계산해 낼 수 있었다.

**깨달은 바 : 진동수는 알려져 있었으므로, 샤이블러는 계산해 낼 수 있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깨달은 바 : 경제학에서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이제까지는 주술 구조만 보았지만 이제는 목적어도 추가 해야 합니다. 사실 목적어가 없으면 당최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문장이 태반이죠.

다음 문장을 보자.

이로부터 샤이블러는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를 계산해 낼 수 있었다.

**샤이블러는 고유 진동수를 계산해 낼 수 있었다. 샤이블러는 계산해 낼 수 있었다.**

뭐가 더 여러분에게 내용파악이 잘 되나요? 당근 전자입니다. 샤이블러가 뭘 계산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목적어를 추가함으로 인해 고유진동수를 계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주술 구조 연습을 빡시게 했다면 당연히 목적어를 추가하는 정도는 껌일 거라고 믿습니다.

**훈련해봅시다!**

파클리탁셀과 같은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방해하여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고 사멸에 이르게 한다.

**깨달은 바 :**

시장이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같은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창출된 여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깨달은 바 :**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우애와 같은 새로운 성스러움을 창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 의례다.

**깨달은 바 :**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깨달은 바 :**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깨달은 바 :**

**정답**

파클리탁셀과 같은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방해하여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고 사멸에 이르게 한다.

**깨달은 바 :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방해하여 사멸에 이르게 한다.**

시장이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같은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창출된 여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깨달은 바 : 시장이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창출된 여력은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인하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우애와 같은 새로운 성스러움을 창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 의례다.

**깨달은 바 : 프랑스 혁명은 성스러움을 창출하고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 의례다**.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깨달은 바 :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고 기대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깨달은 바 : 경제학에서는 금융 안정을,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주술구조와 목적어를 추가하는 훈련까지 했다면 겹문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겹문장이 뭔지 모르면 간단하게 한 개의 문장 안에 끊을 수 있는 문장이 2개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장에서 겹문장일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겹문장을 홑문장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겹문장을 홑문장으로 바꾸는 일은 아마 문법내신 때 많이 해 본 친구들이 있어서 대부분 smooth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에 보고 가겠습니다.

시장이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같은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창출된 여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개별 기업은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된다. 여력은 품질을 향상시킨다. 여력은 가격을 인하한다.**

이렇게 잘랐을 때 거부감이 드는 친구들 있나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만 훈련합니다.

**훈련해보자!**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깨달은 바 :**

파클리탁셀과 같은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방해하여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고 사멸에 이르게 한다.

**깨달은 바 :**

**정답**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깨달은 바 : 직업 단체는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한다. 복지 행정 조직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한다.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기대했다.**

파클리탁셀과 같은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방해하여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고 사멸에 이르게 한다.

**깨달은 바 :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방해한다. 세포가 증식하지 못한다. 세포가 사멸에 이르게 한다.**

다음은 부사어와 관형어 입니다. 부사어와 관형어를 모르는 친구들은 간단하게 ‘수식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도 문법시간에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만한 내용입니다. 정 모르겠으면 문법 기본서를 한 번 펼치고 차분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관형어 부사어는 사실 명칭만 그런 것이고 명칭보다는 ‘수식’이라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훈련해보자!**

사진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근대 문명이 만들어 낸 기술적 도구이자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깨달은 바 :**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우애와 같은 새로운 성스러움을 창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 의례다.

**깨달은 바 :**

**정답**

사진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근대 문명이 만들어 낸 기술적 도구이자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깨달은 바 :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부사어)**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우애와 같은 새로운 성스러움을 창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 의례다.

**깨달은 바 : 자유, 평등, 우애와 같은(부사어)**

아마 이쯤 되면 슬 감이 오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깨닫지 못했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차분히 정독해서 다시 한 번 시도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훈련 문장에 관한 답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친구들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사실 훈련 문장에서 우리가 대충 의미만 파악했지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기본의 기본의 기본의………기본입니다. 문장에서의 조건, 예시, 인용, 대조, 양립 등등 아직도 설명할 게 무진장 많습니다. 부디 노베의 마음으로 한 번씩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문장을 읽는 방법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다음 차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단입니다. 지금까지 짧게 문장만 봤다면 좀 더 큰 범위로 넘어가서 훈련해야 합니다. 좀 더 큰 범위가 바로 문단입니다. 사실 문단에 관해서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많이 없습니다. (없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장을 읽는 방법에 대한 연장선상이니까요. 하지만 만만하게 볼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때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니까요. 이에 필자는 ‘왜 학생들이 문장까지는 잘 보다가 문단에서 머리가 아파지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던졌지만 던짐과 동시에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일말의 고민도 없이 필자가 떠올린 답은 ‘길이가 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국어가 시간이 모자라는 이유는 아무래도 절대적인 텍스트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2만 3천자쯤 됐지만 요즘은 3만자가 훌쩍 넘어가는 시험이 되버렸습니다. 이러니 학생들이 힘들어 할 수 밖에요. 그냥 3만자를 읽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문제까지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고민과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활자로 된 책을 읽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회귀할 수 없습니다.(어차피 회귀해도 여러분 공부 안 하고 놀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치지 않고 지문을 읽어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왜 지문을 읽을 때 힘들었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고요. 바로 텍스트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길이가 길다는 겁니다.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해결책이 나와야겠죠. (문제점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은 비문학 지문에서 많이 써먹습니다.) 해결책은 뭘까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반대로가 뭔 말이냐고요? 길이를 줄이는 거죠. ‘아니, 바밤바 길이를 도대체 어떻게 줄여요?’라고 말할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사실 비문학 할 때 한 번씩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요약이라는 거죠. 요약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문단을 읽는 방법은 결국에는 앞서 문장에 대한 행동코드를 연속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단을 읽어봅시다!**

그런데 S의 과도한 생장이 반추 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반추 동물이 짧은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하면 S의 개체 수가 급격히 늘고 과도한 양의 젖산이 배출되어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산성의 환경에서 왕성히 생장하며 항상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L)와 같은 젖산 생성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하며 다량의 젖산을 배출하기 시작한다. F를 비롯한 섬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 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젖산 농도의 증가로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낮아지면 자신의 세포 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생장이 감소한다. 만일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소진되어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만약 여러분이 이 문단을 보고 그으~냥 읽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문장부터 다시 훈련하자. 근데 정~말 길다. 심지어 문단을 다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읽기 싫겠지만 읽어야 합니다. 첫 문장부터 Vㅔ리 중요한 접속사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조의 접속사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문단이 중요하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면서 읽고 문제를 SSG 풀러 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쳐두고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S의 과도한 생장이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진다. / L은 생장이 증가하고 다량의 젖산을 배출한다. / 섬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pH를 중성으로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다. / 세포 외부의 pH가 낮아지면 생장이 감소한다. /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문단을 읽었을 때보다 조금 더 잘 보이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사실 많이 rough하게 했습니다.) 필자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장에 대한 행동코드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조건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필자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익숙해지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필자가 한 것이지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위 문단을 다시 읽어보고 이번에는 여러분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요약은 ‘진짜’ 요약은 아닙니다. 요약의 ㅇ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각종 조건, 예시 등등 수식된 것들도 다 포함합니다.)

잘 했나요? 잘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훈련은 빠지지 않습니다.

**다음 문단을 읽어보고 요약해보자!**

한편, 이동 경로상의 매 지점에서 사막개미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막개미는 태양의 위치와 산란된 햇빛을 함께 이용한다. 태양의 위치는 태양이 높이 떠 있거나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는 유용하지 않다. 이때 결정적 도움을 주는 것이 산란된 햇빛 정보이다. 사막개미는 마치 하늘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천문학자처럼 하늘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는 셈이다.

**요약 :**

하드 디스크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디스크의 표면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데이터는 동심원으로 된 트랙에 저장되는데, 하드 디스크는 트랙을 여러 개의 섹터로 미리 구획하고, 트랙을 오가는 헤드를 통해 섹터 단위로 읽기와 쓰기를 수행한다. 하드 디스크에서 데이터 입출력 요청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접근 시간이라고 하며, 이는 하드 디스크의 성능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된다. 접근 시간은 원하는 트랙까지 헤드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탐색 시간과, 트랙 위에서 해당 섹터가 헤드의 위치까지 회전해 오는 데 걸리는 대기 시간의 합이다. 하드 디스크의 제어기는 ‘디스크 스케쥴링’을 통해 접근 시간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요약 :**

먼저, 국가에서 제정한 표준산업분류가 있다. 이 분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특성이 얼마나 유사한지, 생산자의 관점에서 투입물이나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 단계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모두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 기준으로 분류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집합을 동일한 산업으로 정의한다. 대분류, 중분류 등 모두 다섯 단계로 구성된 이 분류 방법은 주로 통계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 산업의 기술 수준을 판단할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요약 :**

그러나 경쟁 기술의 초기 문제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해결된다.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면서 원가도 떨어진다. 즉, 경쟁 기술의 수준이나 원가는 처음에는 개선의 속도가 느리지만 점점 그 가속도가 붙는다. 특정 시점($T\_{2)}$에 이르면 경쟁 기술은 기존 기술의 수준과 원가를 모두 따라잡는다. 그리고 기존 기술과 달리 경쟁 기술은 개선 될 기회가 여전히 많다. 꾸준히 개선된 경쟁 기술은 마침내 기존 기술을 밀어내고 주역을 차지한다. 오늘날 롤필름 사진은 다시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술인 디지털 영상의 도전을 받고 있다. 롤필름은 개선의 한계에 이른 상태이지만, 디지털 영상은 지속적인 기술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

**요약 :**

19세기 과학자들은 물질의 최소 단위로 생각되는 미세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그리스인으로부터 물려받은‘원자’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이것이 물질의 최소 단위는 아니었다. 1930년대에 이르러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의 주변을 전자들이 돌고 있는 구조로 된 복합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후로 한동안 물리학자들은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가 바로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최소 단위, 즉 원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968년에 스탠포드 선형 가속기 센터의 실험에 의해 양성자와 중성자조차도 물질의 최소 단위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양성자와 중성자는‘다운 쿼크’와 ‘업 쿼크’라고 명명된 두 가지 입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후 물리학자들은 더욱 강력한 기구를 발명하여 여러 개의 새로운 입자들을 찾아냈다.

**요약 :**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에 의해 복권된 대표적인 할리우드 감독이 바로 스릴러 장르의 거장인 히치콕이다. 히치콕은 제작 시스템과 장르의 제약 속에서도 일관된 주제 의식과 스타일을 관철한 감독으로 평가받았다. 히치콕은 관객을 오인에 빠뜨린 뒤 막바지에 진실을 규명하여 충격적인 반전을 이끌어 내는 그만의 이야기 도식을 활용하였다. 또한 그는 관객의 오인을 부추기는‘맥거핀’ 기법을 자신만의 이야기 법칙을 만들어 가는 데 하나의 극적 장치로 종종 활용하였다. 즉 특정 소품을 맥거핀으로 활용하여 확실한 단서처럼 보이게 한 다음 일순간 허망한 것으로 만들어 관객을 당혹스럽게 한 것이다.

**요약 :**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선제성’과‘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약 :**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열기관 외부에 열을 방출하며 일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열효율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 일의 양으로 정의된다. 19세기 초에 카르노는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를 칼로릭 이론에 기반을 두고 다루었다. 카르노는 물레방아와 같은 수력 기관에서 물이 높은 곳으로 흐르면서 일을 할 때 물의 양과 한 일 의 양의 비가 높이 차이에만 좌우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물이 높이 차에 의해 이동하는 것과 흡사하게 칼로릭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열기관의 열효율 역시 이러한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는 것이었다.

**요약 :**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요약 :**

16세기 후반에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케플러는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하여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자였기에 브라헤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수립할 수 있었다. 우주의 단순성을 새롭게 보여주는 이 법칙들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더 이상 온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요약 :**

**정답**

한편, 이동 경로상의 매 지점에서 사막개미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막개미는 태양의 위치와 산란된 햇빛을 함께 이용한다. 태양의 위치는 태양이 높이 떠 있거나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는 유용하지 않다. 이때 결정적 도움을 주는 것이 산란된 햇빛 정보이다. 사막개미는 마치 하늘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천문학자처럼 하늘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는 셈이다.

**요약 : 사막개미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 사막개미는 태양의 위치와 산란된 햇빛을 이용한다. / 태양의 위치는 유용하지 않다. / 도움을 주는 것이 산란된 햇빛 정보이다. / 사막개미는 하늘을 관찰하고 있는 셈이다.**

하드 디스크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디스크의 표면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데이터는 동심원으로 된 트랙에 저장되는데, 하드 디스크는 트랙을 여러 개의 섹터로 미리 구획하고, 트랙을 오가는 헤드를 통해 섹터 단위로 읽기와 쓰기를 수행한다. 하드 디스크에서 데이터 입출력 요청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접근 시간이라고 하며, 이는 하드 디스크의 성능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된다. 접근 시간은 원하는 트랙까지 헤드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탐색 시간과, 트랙 위에서 해당 섹터가 헤드의 위치까지 회전해 오는 데 걸리는 대기 시간의 합이다. 하드 디스크의 제어기는 ‘디스크 스케쥴링’을 통해 접근 시간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요약 : 하드 디스크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 데이터는 트랙에 저장된다. / 하드 디스크는 읽기와 쓰기를 수행한다. / 접근 시간은 데이터 입출력 요청을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 / 성능을 결정한다. / 접근 시간은 탐색시간과 대기 시간의 합이다. / 제어기는 ‘디스크 스케쥴링’을 통해 접근 시간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먼저, 국가에서 제정한 표준산업분류가 있다. 이 분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특성이 얼마나 유사한지, 생산자의 관점에서 투입물이나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 단계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모두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 기준으로 분류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집합을 동일한 산업으로 정의한다. 대분류, 중분류 등 모두 다섯 단계로 구성된 이 분류 방법은 주로 통계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 산업의 기술 수준을 판단할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요약 : 국가에서 제정한 표준사업분류가 있다. / 재화 또는 서비스의 특성이 유사한지 / 투입물이나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 단계가 유사한지 / 분류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집합을 정의한다. / 분류 방법은 통계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 기술 수준을 판단할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쟁 기술의 초기 문제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해결된다.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면서 원가도 떨어진다. 즉, 경쟁 기술의 수준이나 원가는 처음에는 개선의 속도가 느리지만 점점 그 가속도가 붙는다. 특정 시점($T\_{2)}$에 이르면 경쟁 기술은 기존 기술의 수준과 원가를 모두 따라잡는다. 그리고 기존 기술과 달리 경쟁 기술은 개선 될 기회가 여전히 많다. 꾸준히 개선된 경쟁 기술은 마침내 기존 기술을 밀어내고 주역을 차지한다. 오늘날 롤필름 사진은 다시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술인 디지털 영상의 도전을 받고 있다. 롤필름은 개선의 한계에 이른 상태이지만, 디지털 영상은 지속적인 기술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

**요약 : 경쟁기술의 초기 문제들은 해결된다. / 제조 공정을 개선한다. /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면서 원가도 떨어진다. / 경쟁 기술의 수준이나 원가는 개선의 속도가 느리다. / 가속도가 붙는다. / 경쟁 기술은 기존 기술의 수준과 원가를 따라잡는다. / 경쟁 기술은 개선 될 기회가 많다. / 경쟁기술은 기존 기술은 밀어내고 주역을 차지한다. / 롤필름 사진은 디지털 영상의 도전을 받고 있다. / 롤필름은 한계에 이르렀다. / 디지털 영상은 기술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19세기 과학자들은 물질의 최소 단위로 생각되는 미세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그리스인으로부터 물려받은‘원자’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이것이 물질의 최소 단위는 아니었다. 1930년대에 이르러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의 주변을 전자들이 돌고 있는 구조로 된 복합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후로 한동안 물리학자들은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가 바로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최소 단위, 즉 원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968년에 스탠포드 선형 가속기 센터의 실험에 의해 양성자와 중성자조차도 물질의 최소 단위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양성자와 중성자는‘다운 쿼크’와 ‘업 쿼크’라고 명명된 두 가지 입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후 물리학자들은 더욱 강력한 기구를 발명하여 여러 개의 새로운 입자들을 찾아냈다.

**요약 : 과학자들은 미세한 요소들을 발견했다. / 거기에 ‘원자’라는 이름을 붙였다. / 물질의 최소 단위는 아니었다. / 원자는 복합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 주변을 전자들이 돌고 있다.**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에 의해 복권된 대표적인 할리우드 감독이 바로 스릴러 장르의 거장인 히치콕이다. 히치콕은 제작 시스템과 장르의 제약 속에서도 일관된 주제 의식과 스타일을 관철한 감독으로 평가받았다. 히치콕은 관객을 오인에 빠뜨린 뒤 막바지에 진실을 규명하여 충격적인 반전을 이끌어 내는 그만의 이야기 도식을 활용하였다. 또한 그는 관객의 오인을 부추기는‘맥거핀’기법을 자신만의 이야기 법칙을 만들어 가는 데 하나의 극적 장치로 종종 활용하였다. 즉 특정 소품을 맥거핀으로 활용하여 확실한 단서처럼 보이게 한 다음 일순간 허망한 것으로 만들어 관객을 당혹스럽게 한 것이다.

**요약 : 히치콕은 스릴러 장르의 거장이다. / 히치콕은 평가 받았다. / 히치콕은 그만의 이야기 도식을 활용하였다. / 그는 ‘맥거핀’ 기법을 활용하였다. / 특정 소품을 활용하여 관객을 당혹스럽게 했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약 : 선제적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대처한다. / 기준 금리를 결정한다. /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한다. /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 ‘정책 외부 시차’다. /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 경제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고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 있다. /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열기관 외부에 열을 방출하며 일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열효율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 일의 양으로 정의된다. 19세기 초에 카르노는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를 칼로릭 이론에 기반을 두고 다루었다. 카르노는 물레방아와 같은 수력 기관에서 물이 높은 곳으로 흐르면서 일을 할 때 물의 양과 한 일 의 양의 비가 높이 차이에만 좌우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물이 높이 차에 의해 이동하는 것과 흡사하게 칼로릭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열기관의 열효율 역시 이러한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는 것이었다.

**요약 : 열기관은 열원에서 열을 흡수한다. / 열을 방출하며 일을 하는 기관이다. / 열효율은 정의된다. / 카르노는 열효율 문제를 다루었다. / 카르노는 주목했다. / 칼로릭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한다. / 열효율은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요약 : 고지 의무는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 보험 가입자는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 ‘중요한 사항’은 근거가 된다. / 고지 의무는 방지한다.**

16세기 후반에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케플러는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하여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자였기에 브라헤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수립할 수 있었다. 우주의 단순성을 새롭게 보여주는 이 법칙들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더 이상 온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요약 :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은 인정했다. /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했다. /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다. /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형을 제안했다. / 케플러는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다. /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 경험주의자였기에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수립할 수 있었다. / 법칙들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온존할 없게 만들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여기서의 요약들은 솔직히 필자의 의식의 흐름대로 쓴 것입니다. 절대로 필자가 한 요약이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세세하게 수식이나 목적어까지 완벽히 챙겨두지 않아서 이걸 요약이라고 하는 게 느끼는 게 맞나 싶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의 요약은 그냥 간단하게 워밍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필자도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요약하는데 꽤 애를 먹었습니다. ㅜㅜ 내용을 알기 쉽게 쓰자니 안 배웠고, 배운 것만 쓰자니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고…. 완전 골 때렸습니다.

여러분은 드디어 비문학의 세계에 입장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비문학의 세계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비문학의 세계에 입장한 후에 무한히 많은 문이 닫혀 있을 것입니다. 필자와 함께 이제부터 열쇠를 만들어서 돌려볼 것입니다. 아마 국어 공부를 실패한 친구들은 종류별로 설계도는 모아놨지만 만들지도 못하거나 만들었어도 열쇠가 문에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어 공부 문의 마스터키를 만들기 위해 열심해봅시다.

지문을 읽어나가는 방법론에 대해 필자가 제시를 할 텐데 이는 어디까지나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봤봤을 때나 여러 임상실험(?)을 통해서 나온 나름의 검증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너무 붕 뜬 내용도 아니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니 이해하려고 노력해봅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체화가 목적입니다. 문제를 풀 때 그냥 자연스럽게 스르륵~ 풀, 나를 상상해보면서 열공합시다.

시작하기 전에 두둑한 팁을 주자면 문장을 읽을 때 강약을 조절해야 합니다. ‘강’은 내용상의 삼문이고 ‘약’은 내용 상의 여백입니다. ‘약’부터 봅시다. 여기서 내용 상의 여백이란 읽을 때 약하게 읽어야 되는 파트입니다.

예를 들어보자

스타이컨은 1901년부터 거의 매주 로댕과 예술적 교류를 하며 그의 작품들을 촬영했다. 로댕은 사물의 외형만을 재현하려는 당시 예술계의 경향에서 벗어나 생명력과 표현성을 강조하는 조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타이컨은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문학 작품처럼 해석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로댕 또한 이에 동감하여 기꺼이 사진 작품의 모델이 되어 주기도 하였다.

밑줄 친 부분이 바로 내용 상의 여백입니다. 출제자가 여러분들의 위해 특별히 배려해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왜냐고 묻는다면 대답하는 게 인지상정. 솔직히 내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도 않을뿐더러 간단히 말하면 로댕이랑 계모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수능 시험날에 잔뜩 긴장할 텐데 계모임 내용으로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상의 여백이 무슨 말인지는 이제 감이 왔을 것입니다. 내용상의 여백을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 상의 삼문도 중요합니다. 내용상의 삼문이 뭐냐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당연합니다. 필자가 만든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용 상의 삼문이란 문장에서 담고 있는 내용의 밀도가 높을 것을 말합니다. 빽뺵할 삼에 글월 문입니다. 한자를 풀어보니 바로 느낌이 옵니다. Anyway,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의미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just 필자가 말한 강약을 보는 눈을 키우세요. 강약을 보는 눈을 키울 훈련을 시작합시다.

**내용상의 여백에다가 밑줄을 치고 내용상의 삼문에다가 아무 표시나 해보자!**

우리는 흔히 물리 변화의 정의를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 그 상태나 모양만이 변하는 현상’으로, 화학 변화의 경우는 ‘어떤 물질이 원래의 성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물질의 성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

그런데 아펠과 하켄의 증명에서 수학자들의 관심을 끈 점은 증명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그 증명이 이루어진 방법이었다. 그 증명 과정에는 고려해야 할 경우가 대단히 많고 필요한 계산의 양도 엄청났다. 그들은 4년 동안의 집중적인 연구를 통하여 약 만 가지의 기본적인 경우를 분석했으나 인간인 수학자가 그 모든 과정을 점검하기란 불가능했다. 결국 증명 과정은 컴퓨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컴퓨터도 이를 해결하는 데 무려 1,200시간이나 걸렸다.

우리는 매일 밤 자신의 피부를 감싸고 있던 덮개(옷)들을 벗어 벽에 걸어 둘 뿐 아니라, 신체 기관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던 여러 도구들, 예를 들면 안경이나 가발, 의치 등도 모두 벗어 버리고 잠에 든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잠을 잘 때 옷을 벗는 행위와 비슷하게 자신의 의식(意識)도 벗어서 한쪽 구석에 치워 둔다고 할 수 있다.

**정답**

우리는 흔히 **물리 변화의 정의를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 그 상태나 모양만이 변하는 현상’**으로, **화학 변화의 경우는 ‘어떤 물질이 원래의 성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물질의 성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

그런데 아펠과 하켄의 증명에서 수학자들의 관심을 끈 점은 증명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그 증명이 이루어진 방법이었다. 그 증명 과정에는 고려해야 할 경우가 대단히 많고 필요한 계산의 양도 엄청났다. 그들은 4년 동안의 집중적인 연구를 통하여 약 만 가지의 기본적인 경우를 분석했으나 인간인 수학자가 그 모든 과정을 점검하기란 불가능했다. 결국 **증명 과정은 컴퓨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컴퓨터도 이를 해결하는 데 무려 1,200시간이나 걸렸다.

우리는 매일 밤 자신의 피부를 감싸고 있던 덮개(옷)들을 벗어 벽에 걸어 둘 뿐 아니라, 신체 기관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던 여러 도구들, 예를 들면 안경이나 가발, 의치 등도 모두 벗어 버리고 잠에 든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잠을 잘 때 옷을 벗는 행위와 비슷하게 **자신의 의식(意識)도 벗어서 한쪽 구석에 치워 둔다고 할 수 있다.**

강약을 조절하는 경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문을 볼 때 강약을 모르는 친구들보다는 훨씬 편한 상태로 독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에서 지문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하게 챙겨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조건입니다. 이미 많은 기출에서 셀 수도 없이 나온 게 조건이죠. 심지어 지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출제 할 때도 <보기>형태나 ‘~면 ……다’라는 부분에서 ‘~면’ 부분을 슬쩍 바꿔서 ‘△면 ……다’라고 선지에 넣어둘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조건은 법, 경제, 철학, 과학, 기술, 예술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MSG를 살짝 쳐서 문단 1개에 조건이 최소 1개씩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필자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 ‘조건’의 중요도는 충분히 인식했을 거라고 봅니다.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필자가 밑줄 그은 부분을 봅시다. 밑줄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나요? ‘~ 때’로 끝납니다. 이 포인트가 바로 조건입니다. ‘알게 되었을 때’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지문을 못 쓰겠죠. 특정한 조건하에 그 이후의 내용을 연결해가기 때문에 문제 선지 구성방식에서 조건을 활용한 선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거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른 방식으로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면’은 우리가 영어 시간에 가정법을 할 때 많이 봤을 것입니다. ‘~면’은 가정과 같은 의미로 생각해도 됩니다. 어차피 비슷한 맥락이에요. ‘만약에 이렇다면’이라는 얘기랑 대충 비슷하거든요. 다음 밑줄은 아예 발문에서 ‘조건하에’라고 적어줬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이 나온다는 것을요. 심지어 위아래 박스에 있는 문장은 2020학년도 수능에 베이즈주의자 지문에서 따온 것입니다. 한 지문에서도 이렇게나 조건을 많이 발견할 수 있으니 집중하고 정독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주장대로 지식 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 공유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전제되어야 한다’도 결국 조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드벨벳의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빛의 속도가 진공에서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상대성 이론을 수립하였다.

이 문장에서는 조건이 두 번 쓰였습니다. 어딜까요? 정답은 진공에서와 기초로 하여 입니다. 진공에서는 장소적인 제한 즉, 조건입니다. ‘기초로 하여’는 ‘이를 바탕으로’라는 말과 유사합니다. 앞에 말과 유사한 것이 ‘전제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조건이라는 것이 어떤 문맥으로 활용되는지 슬 감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키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하는 경우’, ‘~될 경우’도 역시나 조건입니다. 확통에서 ‘조건부 확률’ 다들 배우시죠? A일 때, B의 확률을 구하라는 것이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을 잘하신다면 이 파트도 수월할 것입니다. (아무말…?) 이 정도라면 대충 조건의 구조에 대해서 파악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훈련을 통해서 조건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훈련해보자!-조건을 나타내는 부분에 밑줄을 치자**

가령 남의 것을 탐내는 성품을 똑같이 가졌는데 결핍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 성품이 발현되는 반면에 풍족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면, 전자만 비난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관람객들이「꽈광!」의 폭력적인 내용과 명랑한 묘사 방법 간의 모순이 섬뜩한 것임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작가의 비판적인 의도가 성취되기 때문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이다.

그러나 스티로폼 입자와 같이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가 낙하할 경우에는 부력이 물체의 낙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동인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정답**

가령 남의 것을 탐내는 성품을 똑같이 가졌는데 결핍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 성품이 발현되는 반면에 풍족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면, 전자만 비난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관람객들이「꽈광!」의 폭력적인 내용과 명랑한 묘사 방법 간의 모순이 섬뜩한 것임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작가의 비판적인 의도가 성취되기 때문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이다.

그러나 스티로폼 입자와 같이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가 낙하할 경우에는 부력이 물체의 낙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동인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조건까지 모두 봤습니다. 모두 확실하게 알았죠?? 이제는 인용과 예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과 예시는 솔직히 설명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면 문자 그대로 인용과 예시거든요. 인용과 예시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리 만무하죠. 다만 집중해서 봐야 될 ‘강’ 인용과 예시가 있고, ‘약’ 인용과 예시가 있다는 정도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저희는 위에서 강약조절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하자.**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게임은 본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게임이라 불리는 것들 사이의 유사성에 의해 성립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경우 발견되는 유사성을 ‘가족 유사성’이라 부르기로 해 보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어머니와 나와 동생의 외양은 이런저런 면에서 서로 닮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셋이 공통적으로 닮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19세기 음악 평론가인 한슬리크에 따르면, 음악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은 음들이 ‘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에서 비롯되는데, 음악을 구성하는 음악적 재료들이 움직이며 만들어 내는 형식 그 자체를 말한다.

피겨 선수에게 공중 회전수는 중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중회전을 하는 동안 각속도를 크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겨 선수가 공중에서 팔을 몸에 바짝 붙인 상태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인용과 예시까지 모두 봤습니다. 사실 별로 본 건 없는데….

다음은 비교/대조 입니다. 비교와 대조는 아마 많은 학생들이 제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뻔히 보이는 구조고, 많이 출제된 유형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교와 대조 정도는 쉽게 해낼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기도 합니다.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사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 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위 지문에서 비교/대조 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고전 역학과 양자 역학에 관해 비교/대조 하는 지문입니다. 고전역학에서는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자 역학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명백하게 고전 역학과 양자 역학을 비교/대조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상호 작용론이 있다. ~~ 이에 비해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중간 내용은 잘랐지만, 오히려 잘라서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상호 작용론과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는 평행론이 서로 비교/대조 되고 있습니다.

‘역시 아직까진 쉽구나’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도 훈련을 빠질 순 없겠죠.

**훈련해보자!**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가령‘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반면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가령 각 인식 주체는‘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한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액체 시대’로 정의 하였다.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벡과 달랐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정답**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가령‘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반면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가령 각 인식 주체는‘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전통적 인식론자와 베이즈주의자를 비교/대조 하는 지문입니다

한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액체 시대’로 정의 하였다.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벡과 달랐다.

바우만과 벡을 비교/대조 하는 지문입니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과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을 비교/대조 하는 지문입니다.

팁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비교/대조 구조가 나오면 ‘반면에, 하지만…..’ 등등의 역접어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대조 구조는 아니지만 비교/대조 라인 정도를 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친구 같은 녀석을 말하는 것이죠. ‘다만’ 이 나오면 ‘강’하게 읽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뇌 속에 내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나열입니다. 나열도 비교/대조 와 마찬가지로 무척 쉬운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쭉~ 읽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이런 나열이 쭉쭉 나오다 보면 뇌에서 용량 초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잘 정리해가면서 읽으세요.

이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문제점과 해결책은 PS 구조라고 합니다. Problem & Solution이죠. 앞으로 PS라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점(P)가 왜 발생하는지부터 따져보겠습니다.

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다.

문제점이 왜 생겼나요? 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겨서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그렇다네요.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해결책(S)이 등장해야죠.

이를 막으려면 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를 제어해 실시간으로 편차를 보정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를 제어해 실시간으로 편차를 보정해야 된다고 하네요. PS 구조 파악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룰 과학기술 파트에서 정말 무진장 대박 완전 많이 나옵니다. PS 구조는 문제를 풀면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어렵다는 얘기죠. 방금까지 어렵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은 구조를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고 실제로 내용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따라오면 전보다 훨씬 나아진 본인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음은 $S\geq 2$입니다. 도대체 $S\geq 2$가 뭐냐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S$는 something과 somebody입니다. 갑자기 왜 영어냐고 묻는다면 한 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상호 작용론이 있다. ~~ 이에 비해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여기서 $S$는 상호 작용론, 평행론 입니다. 이제 $X$가 뭔지 아시겠죠? $S\geq 2$는 지문에서 something과 somebody가 두 가지 이상 나온다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빼면 여러분이 보는 거의 모든 비문학 지문은 $S\geq 2$가 적용된다고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줄여서 공차라고 얘기합니다. 수열에서 배우는 그 공차가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우선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하자면 ‘장예원의 씨네타운’과 ‘배성재의 텐’이 있습니다. (둘 다 SBS 라디오) 공통점은 라디오라는 것이고, 차이점은 DJ가 장예원 아나운서와 배성재 아나운서라는 거죠. 공차는 지문에서도 나오지만 선지 조합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성재의 텐’이라고 했는데 아나운서를 슬쩍 바꿔서 DJ가 장예원 아나운서라고 하면 틀린 선지가 됩니다. 또 ‘장예원의 씨네타운’은 라디오인데 ‘배성재의 텐’은 다큐라고 얘기하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전자가 차이점, 후자가 공통점을 이용해 선지를 조합하는 방식의 일부분입니다. 물론 지문에서는 틀린 정보를 주지 않을 것이니 공차가 나오면 문제로 항상 출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서 표시를 하거나 여러분의 머릿속에 저장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독해의 틀은 어느 정도 볼만큼은 다 봤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강약 조절, 조건, 인용, 예시, 비교/대조, 나열, PS, $X\geq 2$ , 공차까지 꽤 많이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차분히 정독해서 완독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문과’ , ‘이과’ , ‘예체능’ , ’기출로 조각하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은 분량도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